

사회

# 삼겹살값 도대체 왜 안내리는 거야

### 돼지값 뚝 떨어졌는데 '금겹살' 여전 닭·소고기도... 한번 오르면 요지부동

'삼겹살 데이(3월3일)'라고 불리는 지난 3일 가족과 함께 광주 시내 한 음식점을 찾은 박모(49)씨는 메뉴판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삼겹살 1인분(180g)에 1만1000원. 지난해엔 구제역 파동 등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이젠 산지 돼지 값이 떨어진 만큼 음식 값도 떨어져야 하지만 전혀 '아니 올 씨다'였다. 사장 주인에게 황의하고 싶었지만 모처럼의 가족 회식이기 기분이 상할까봐 참고, 주문을 했다.

8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삼겹살(100g) 소비자는 지난해 8월 2600원에서 최근 1750원으로 32.7%나 떨어졌다.

삼겹살 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의 물가는 한번 오르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겹살'이라 불리며 서민 결에서 멀어졌던 삼겹살 값이 떨어지고, 채소류도 예전 가격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가격을 낮추지 않는 채 영업하고 있어 대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정부나 각 자치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 물가 안정 대책과도 반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구청이 삼겹살, 소고기, 치킨,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 구청은 2주 간격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품목과 49개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지표를 구성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 공식 자료를 보면 삼겹살의 경우 1인분(180g) 업소 가격이 지난해 1월 4000원선이었으나 4월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5월 최저 7000원에서 최고 1만2000원까지 급등했다가 9000원~1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고기는 2년 전부터 고공행진을 유지하며 1인분 등심을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닭 튀김

도 한 마리 기준, 2010년 1만원을 넘기더니 2011년에는 1만2000원을 거쳐 1만3000~1만4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용료의 경우도 지난해 6월 1000~2000원 정도 올라 현재까지 적게 받는 곳은 7000원에서 비싼 곳은 1만원의 가격 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한 구청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강제로 가격을 낮추게 한다든가 해당 업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며 "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늘려 홍보하거나 물가안정 참여 모범 업소에 대해 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경찰, 협력업체 직원 5명 입건

SK텔레콤과 KT의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만건 가까운 개인정보가 이 프로그램으로 조회됐고, 유출된 정보는 건강 수시만원에 심부름센터 등으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를 사고관 혐의로 조회업자,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한 뒤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보수·개발하는 협력업체 A사에 근무하는 서씨 등 직원 5명은 업무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조회를 의뢰하면 이 프로그램을 가진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산 뒤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정보보류관 혐의다.

이 정보는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 31명에게 흘러들어가 건당 30만~60만원에 팔렸다.

/연합뉴스



### “농협 이사 찍어 달라” 회순모 조합장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중 부장검사)는 8일 농협중앙회 이사로 당선되기 위해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회순의 모 농협 조합장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전남지역 조합장 146명에게 모두 2000만원 어치의 불미스러운 물건을 나눠주고 당선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진단평가 치르는 중학생들

회순중(교장 박중대) 2학년 학생들이 8일 교실에서 진단평가 문제를 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국단위 진단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치른 반면, 광주 시교육청은 '성적경쟁을 유도한다'며 자체 출제한 문제로 보도록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경찰 “부당 지휘” 검사 고소

경남권 경찰서 간부가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했다. 경찰 간부가 일상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받는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B검사가 수사 축소를 중용하고 교육과 협박을 했다며 모욕·협박·

### 총인비리 교수 또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8일 총인비리사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목포대 이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의위원이었던 이 교수는 지난해 초 “총인비리사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수신 혐의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대립산업 측으로부터 1000만원, 코오롱글로벌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병원 약점 잡고 “1억 내놔” 공갈

○자신들의 치료 기록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형제가 경찰에 달미.

○8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모(40)씨와 김씨의 동생(36)은 지난 2월 중순께 광주시 광산구 모 카페에서 서구 모 의원 신모(43) 원장에게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겠다”고 7차례에 걸쳐 협박했다는 것.

○보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 형제는 지난 2011년 10월께 신 원장이 자신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알고 병원을 공모.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양심불량 ‘가짜 아버지’ 행세

### 나주서 작년 고교생 4명 여고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 알고보니 동명이인 뒤늦게 합의금 돌려줘... 사기혐의 조사 검토

집단성폭행을 당한 여고생과 같은 이름의 딸을 둔 50대가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자신의 딸이 피해자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고 검찰에 가짜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들켰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구형을 앞둔 검찰이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받은 ‘가짜’ 피해자 아버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려 하자 합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나주경찰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박모(18)군 등 5명은 지난해 1월 나주 한 편의점에서 모고고 3학년 A(18)양을 강제추행한 뒤 입모(18)군을 제외한 4명이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A양을 불러내 지난해 3월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박군이 계속 A양을 성폭행했으며, 이 충격으로 A양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A양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나 소문 때문에 복학이 힘들어지자 뒤늦게 지난해 조선대 원스튜디오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나주경찰은 박군 등 4명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입군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 2일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양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후 박군 등의 부모는 자녀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미성년자인 A양 부모를 수소문한 끝에 A양과

이름이 같은 딸을 둔 B(50)씨에게 1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A양과 A양의 조부모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합의서가 가짜로 드러났다. 가해자 부모들이 A양과 동명이인이면서 나이가 한 살 어린 학생의 아버지 B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지역에 이름이 같고 나이도 비슷해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착각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것 같다”며 “애초 B씨가 돈을 되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해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B씨가 뒤늦게 합의금을 돌려주자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 부모들은 8일 뒤늦게 A양의 조부모 등과 합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전복장터

## 전복구이 전문점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만원~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대산프리모남녀가발

## 21년 가발 명가

### 50만원~

### 특수가발 발매!!!

###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 테일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